"위기를 넘어 축산업의 새시대를 열자"

이 보도자료는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보도자료

축산생산자단체 일동

제공일 : 2021. 7. 29
제공자 : 축산관련단체협의회 회장 이승호
쪽 수 : 1P
별첨자료 : 없음

담당 : 이정훈 축단협 대외협력팀장

전화	02)588-7055	팩스	02)584-5144
이메일	kdbfa@chol.com		

사료가격 인상폭 최소화, 농가와의 상생방안 마련 요청

- 축산생산자단체, 농협사료 대표이사 면담실시 -

❑ 축산생산자단체들(축단협 이승호 회장, 한우협회 김삼주 회장, 양계협회 이홍재 회장)은 7월 29일, 농협사료 본사에서 안병우 농협사료 대표이사와 면담을 갖고, 최근 농협사료 가격인상 예고와 관련하여 축산농가의 입장을 전달하였다.

❑ 이날 면담에서 축산생산자단체들은 농협사료 가격인상(8.2)과 관련하여, 원자재 가격 및 환율상승 등 사료시장의 어려움을 이해한다면서도, 축산농민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하는 농협사료에서 가격인상을 단행하는 것에 대한 유감표명과 함께 인상폭 최소화를 요구하였다.

❑ 또한, 생산자단체들은 환율과 곡물가격이 떨어져 사료가격 인하요인이 발생했을 경우 농협사료에서 선도적으로 사료가격 인하에 앞장서 줄 것을 요구하였다. 아울러 연말까지 사료가격 추가인상이 없도록 자구책 마련과 함께 장기적으로 사료가격 안정장치 등 농가 경영부담 완화방안 마련도 촉구하였다.

❑ 안병우 대표이사는 면담에서 "버틸 만큼 버텼으나 불가피하게 가격인상을 단행하게 된 점에 대해 유감이다"면서, "추후 인하요인 발생 시 농협사료에서 선도적으로 사료가격 인하반영을 통해 축산농가 경영안정에 기여하겠다"고 밝혔다.

❑ 축단협 이승호 회장은 "현재 환경규제와 대체단백질 등 안티축산 여론확산, 사료값 폭등까지 더해 농가들은 생업존폐 기로에 서 있다"고 밝히면서, "농민이 없으면 농협사료도 존재이유가 없음을 명심, 상생정신에 입각하여 추후 인하요인 발생 시 즉각 사료가격에 반영하라"고 재차 강조하였다.

❑ 한편 축단협 사무국에 따르면 사료협회 면담도 요청한 상황이며, 사료가격 인상 조치와 관련한 축산단체 입장을 전달할 계획이다. "끝"